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 선택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옳은 행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하는 학문으로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옳다’와 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을 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가 보기에 이들은 윤리학이 ㉠은 점을 간과하고 있다.

- ① 도덕적 탐구가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가를 검토해야 한다
- ② 도덕규범을 당위가 아닌 사실의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 ③ 도덕 현상의 가치 중립적 기술을 핵심 과제로 삼아야 한다
- ④ 도덕적 실천을 위해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정립해야 한다
- ⑤ 도덕적 추론의 형식적 타당성 검증을 주된 과제로 삼아야 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세상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서조차도 제한 없이 선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선의지뿐이다. 이성의 최고의 실천적 사명은 선의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다.  
 을: 덕은 하나의 습득된 인간의 자질로서, 그것의 소유와 실행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실천에 내재하고 있는 선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① 갑: 공동체가 추구하는 선을 따르려는 의지만이 도덕적이다.
- ② 갑: 행위의 준칙은 보편적으로 따라야 할 법칙이 될 수 있다.
- ③ 을: 도덕적 선악은 공동체의 역사와 무관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 ④ 을: 덕은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게 하는 타고난 성품이다.
- ⑤ 갑, 을: 맥락적 사고가 아닌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해야 한다.

3.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에게  
 사랑에 대해 고민이 많은 너에게 조언을 해 주고 싶구나. 요즘 사람들은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기르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 같구나. 하지만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능동적 활동이란다.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과 성장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것이며, 착취 없이 존경하는 것이란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한다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란다.

< 보 기 >  
 ㄱ. 사랑은 상대방의 요구에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이다.  
 ㄴ. 사랑은 보호와 존경을 기본적 요소로 내포하고 있다.  
 ㄷ. 사랑은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활동이다.  
 ㄹ. 사랑은 주는 행위로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 것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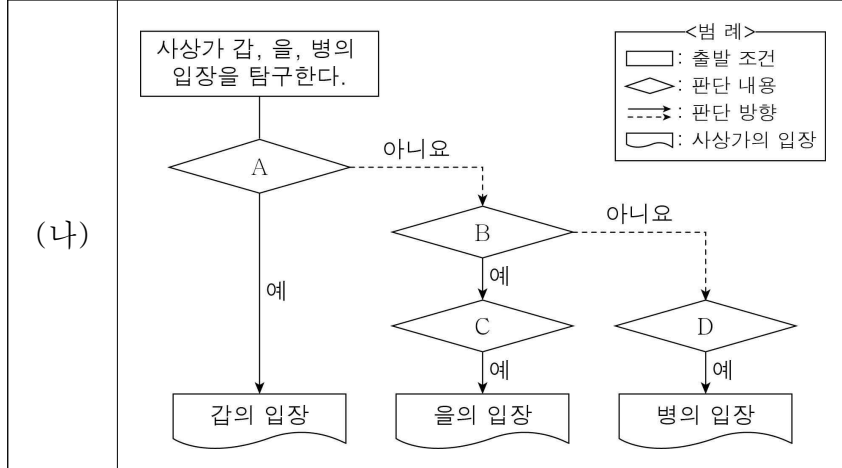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우리는 영원한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그리고 전쟁 수행을 종식시키기 위해,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가 공화 정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을: 평화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폭력에 대해 알아야 한다. 폭력에는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 그리고 이 두 가지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이 있다.

- ① 갑: 개별 국가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제 연맹이 필요하다.
- ② 갑: 다른 국가의 체제 변화를 위한 강제력 사용은 허용된다.
- ③ 을: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은 문화적 폭력에 국한된다.
- ④ 을: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⑤ 갑, 을: 평화 조약의 체결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피조물인 동물을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다.  
 을: 유기체는 고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을 추구하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어떤 종을 다른 종보다 선호하는 편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병: 동물이 인간과 다른 종에 속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 차별주의이며, 종 차별주의는 인종 차별과 다를 바 없이 부도덕하다.



< 보 기 >  
 ㄱ. A: 동물에 대한 폭력적 행위는 인간의 의무에 어긋나는가?  
 ㄴ. B: 생명체는 종에 상관없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는가?  
 ㄷ. C: 생명체 고유의 선을 보호하기 위한 간섭이 허용될 수 있는가?  
 ㄹ. D: 인간과 동물의 동일한 양의 고통은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하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6. 갑의 입장에 비해 을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갑: 원자 폭탄을 전쟁에 이용한 사람은 정치인들이므로 과학적 연구의 결과 활용에 대한 책임은 그들이 져야 한다. 과학자는 연구로 발견한 진리를 공표할 책임만 지닌다.

을: 핵무기 개발이 가져올 희망보다 공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과학자는 과학 기술이 가져올 결과의 모호성과 가늠할 수 없는 파괴력이 초래할 위험에 주목해야 한다.

- X: 과학 기술의 활용 결과를 과학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 정도
- Y: 과학 기술 연구와 관련된 과학자의 책임을 축소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
- Z: 과학자가 과학 기술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성찰해야 한다고 보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문화 산업의 독점하에서 대중문화는 획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대중문화의 조종자들은 독점을 숨기려 하지도 않는다. 독점의 힘이 강화될수록 그 힘의 행사도 점점 노골화된다. 영화나 라디오는 더 이상 예술인 척할 필요가 없다. 대중 매체는 그들이 고의로 만들어 낸 것들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사용되며, 대중은 문화 산업의 객체가 된다. 대중에게 다양한 질의 대량 생산물이 제공되지만 그것은 이윤 창출을 위한 문화 산업 체계의 일부일 뿐이다.

- ① 문화 산업이 확산될수록 인간의 몰개성화 경향은 감소한다.
- ② 문화 산업은 예술을 상품화하려는 시도를 예방하고자 한다.
- ③ 문화 산업은 대중에게 규격화된 예술과 가치관을 전달한다.
- ④ 문화 산업의 목표는 예술의 심미적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다.
- ⑤ 문화 산업은 대중이 각자 고유한 예술 체험을 하도록 장려한다.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緣起)를 보는 자는 법(法)을 보고,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 문제 상황 >

기업가 A는 경영난이 지속되자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장의 폐수를 무단으로 방류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자연과 인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 ② 인간에 내재된 불성을 극복하려는 의지에 따라 결정하세요.
- ③ 자연의 모든 구성원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 ④ 인간이 우월한 존재로서의 지위를 지킬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 ⑤ 인간 외의 존재도 독립된 실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하세요.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지능에 따른 분배 원리는 정형적 원리이다. 이러한 원리는 차별적인 소유 권리를 창출하는 과거의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역사적이다.

을: 지능과 같은 천부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분포로 인한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

< 보 기 >

- ㄱ. 갑: 개인은 천부적 자산과 그것을 이용하여 얻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 ㄴ. 을: 천부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할 수 없다.
- ㄷ. 을: 개인은 사회적 협동의 공정한 체제의 규칙에 따라 얻은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 ㄹ. 갑, 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 원리가 정의의 원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통치자들이 되어야 한다. 상인이 전사 계층으로 옮기려 하거나 전사가 통치자 계층으로 옮기려고 하면 국가는 파멸할 것이다.

을: 어질고 능력이 있으면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등용한다. 서인(庶人)의 자식도 학문에 힘쓰고 행실이 바르며 예(禮)를 쌓아 본성을 극복하면 관리가 될 수 있다.

- ① 갑: 통치자들만 공동생활을 통해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각자 자신의 성향에 맞는 한 가지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 ③ 을: 직업에 충실하면 본성을 회복하고 인격을 닦을 수 있다.
- ④ 을: 예에 정통한 사람은 모든 일을 이해하고 잘하는 사람이다.
- ⑤ 갑, 을: 개인의 희망에 따라 사회적 역할이 부여되어야 한다.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고도로 조직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재력이 없으면 평판을 얻을 수 없다. 재력을 과시하여 평판을 얻기 위한 수단은 여가와 재화의 과시적 소비이다. 사람들의 평판을 효과적으로 얻으려면 불필요한 사치품에 돈을 써야 한다. 오로지 필수품을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러한 과시적 소비는 하층계급에서도 나타난다.

- ① 과시적 소비는 하층계급에서 상층계급으로 확산되는가?
- ② 사회 전체의 부가 늘어날수록 과시적 소비는 감소하는가?
- ③ 모든 계층에서 평판을 높이려는 과시적 소비가 나타나는가?
- ④ 자기 보존 본능은 과시적 소비의 주된 경제적 동기가 되는가?
- ⑤ 필수품 소비는 유향계급이 재력을 과시하는 유용한 방법인가?

12. 그림은 서양 사상이자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술 작품은 좋은 곳에서 불어오는 미풍처럼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은 젊은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다운 말을 닮고 사랑하고 공감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예술 작품에 도덕적인 작품, 비도덕적인 작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술은 예술 안에서 완벽함을 추구할 뿐, 예술 밖에서 완벽함을 찾지 않습니다. 예술이란 아름답고 섬세한 형태, 고상한 색채로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는 것입니다.



- ① 갑: 예술 작품은 인간의 품성 함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 ② 갑: 예술 작품 검열은 예술의 도덕적 교화 기능을 약화시킨다.
- ③ 을: 예술 작품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때 가치를 지닌다.
- ④ 을: 예술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도덕에 근거해서 이뤄져야 한다.
- ⑤ 갑, 을: 예술 작품은 예술 그 자체를 목적으로 추구해야 한다.

13.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원조의 의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공동체에 속하느냐는 원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다.</p> <p>을: 원조의 의무는 합당하게 정의로운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이 불리한 여건에 의해 고통 받고 있는 사회에 대해 부담해야 할 의무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p> </div>

- < 보 기 >
- ㄱ. A: 빈곤에 처한 모든 사람들을 균등하게 원조해야 한다.
  - ㄴ. B: 원조할 때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ㄷ. B: 원조 주체는 원조 대상국에 강제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 ㄹ. C: 질서 정연한 사회는 지구적 분배 정의의 원칙에 따라 원조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4.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남북의 분단 비용 중 국방비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남북은 모두 경제 규모 대비 적정 수준 이상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다.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국방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을: 남북이 통일이 된다면 통일 이전과 달리 세계적인 강대국들과 국경을 접하게 되기 때문에 국방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통일에 따른 국방비 증가는 통일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할 것이다.

- ① 갑: 통일 편익은 북한이 아닌 남한 지역에서만 발생할 것이다.
- ② 갑: 통일 이후의 국방비 감소는 통일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 ③ 을: 통일된 이후에도 분단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 ④ 을: 통일 국가의 영토는 남북한을 합친 것보다 확장될 것이다.
- ⑤ 갑, 을: 통일 이전 대비 통일 이후의 국방비는 증가할 것이다.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갑: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개인보다 앞서 있다. 국가는 전체이며, 개인은 그 부분으로서 혼자서는 자급자족하지 못한다. 국가에서 살 필요가 없는 자는 동물이거나 신이다.

을: 국가는 사람들이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를 벗어나 생명, 자유,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다.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이러한 목적으로 신탁된 권력이다.

- ① 갑: 국가는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가장 포괄적인 공동체이다.
- ② 갑: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 단계에 도달한 최상의 공동체이다.
- ③ 을: 국가는 공정한 재판관과 집행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④ 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된다.
- ⑤ 갑, 을: 국가 질서는 통치자가 절대 권력을 가져야 유지된다.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삶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

을: 진인은 삶을 기뻐할 줄도 모르고 죽음을 싫어할 줄도 모른다. 삶의 시작을 꺼리지도 않고 삶의 끝을 바라지도 않는다. 의연히 가고 의연히 올 따름이다.

- < 보 기 >
- ㄱ. 갑: 도덕적 삶보다는 사후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ㄴ. 갑: 죽은 사람에 대한 애도는 예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 ㄷ. 을: 생사를 분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도에 따라야 한다.
  - ㄹ. 갑, 을: 내세의 행복을 위해 선한 행위를 반복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1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한다. 종신 노역형만으로도 가장 완강한 자의 마음을 억제 시키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지닌다.</p> <p>을: 형벌은 본질적으로 해악이다. 공리의 원리에 의할 때 형벌이 근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유익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경우 형벌은 부적합하다.</p> <p>병: 형벌은 사법권의 이념으로서 도덕 법칙에 따라 의욕되는 바이다. 범죄와 보복은 동등해야 하며 형벌의 질과 양은 보복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p>
(나)	

< 보 기 >

ㄱ. A, F: 사형은 사회 계약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ㄴ. B, D: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함을 간과한다.

ㄷ. C, E: 사형은 범죄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형벌임을 간과한다.

ㄹ. D, F: 형벌이 방지할 해악이 형벌의 해악보다 작아야 함을 간과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8. (가)의 입장에 대해 (나)의 입장에서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뇌사자는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활동을 할 수 없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나) 뇌사가 죽음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뇌사자라도 심폐 기능이 유지되면 죽은 것이 아니다.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보고 장기 이식을 하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

- ① 유용성 극대화를 위해서 뇌사의 인정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②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할 때 사회적 선이 실현됨을 간과한다.  
 ③ 뇌 기능 상실이 죽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간과한다.  
 ④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해야 장기 이식이 확대됨을 간과한다.  
 ⑤ 뇌사를 죽음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를 해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9.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과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그 행위가 보다 효과적인 호소가 되도록 적절하게 계획되는 것이 중요하다.

을: 시민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 한편 야생의 파괴를 가져올 댐 건설과 동물 학대 실험을 반대하는 시민 불복종도 정당화될 수 있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다수를 위협하고 강제하려는 위법 행위인가?  
 ②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거부를 전제로 하는가?  
 ③ 시민 불복종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의롭지 못한 법도 있는가?  
 ④ 시민 불복종은 합법적 노력 실패 후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인가?  
 ⑤ 시민 불복종의 목표에 동물의 이익 옹호가 포함될 수 있는가?

20.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개인의 인터넷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용자가 사망했을 때 남겨진 디지털 유산\*의 상속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유족의 알 권리를 존중하고 디지털 유산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디지털 유산을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모든 디지털 유산을 상속하는 것은 사망자의 사생활과 잊힐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공개한 디지털 유산만 제한적으로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잊힐 권리는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권리이므로 비공개 디지털 유산도 공개된 디지털 유산과 함께 유족에게 상속해야 합니다.

\* 디지털 유산: 사망한 사람이 남긴 디지털 콘텐츠, SNS 게시물,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 머니 등이 포함됨.

- ①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한 시기인가?  
 ② 온라인 공간에 공개된 디지털 유산은 상속될 수 있는가?  
 ③ 디지털 유산 상속인의 자격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④ 사망자의 모든 디지털 유산은 유족에게 상속되어야 하는가?  
 ⑤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잊힐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가?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